

정원창 “중국집에서 군만두 서비스까지 인기 실감해요”

‘경이로운 소문’ 신명휘 시장 아들 ‘신혁우’ 역

“예능 출연? ‘체험 삶의 현장’·‘삼시세끼’ 좋아요”

“아버지가 연기 권유...가장 든든한 버팀목”

“경이로운 소문”은 정원창이라는 사람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게 해준, 고마운 작품입니다.”
배우 정원창은 지난 8일 뉴스시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라며 애정 가득한 소감을 전했다.
정원창은 지난달 24일 종영한 OCN 주말극 ‘경이로운 소문’에서 소문(조병규 분)이 다니는 학교 내 최고 빌런 ‘신혁우’ 역을 맡아 입체적인 악역 캐릭터를 그려냈다.
비열한 표정과 날선 독설의 악역 연기를 보여 주는가 하면, 악구에 들린 아버지 신명휘(최광일 분)에게 위협을 당하며 공포감을 극대화하고 자신 또한 악구에 들리는 반전을 선보이기도 했다.

“경이로운 소문”은 최종회 시청률 11.9%(닐슨 코리아, 전국)로 역대 OCN 오리지널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는 “동력은 소통이었던 것 같다. 현장에서 배우-배우, 배우-감독, 스태프 간 의견을 얘기하는 데 있어 주저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분석했다.
높아진 인기를 부쩍 실감하며 속스럽다는 반응이다. “얼마 전 중국집에서 짬뽕을 시켰는데 주인분이 저를 알아보고 군만두를 서비스로 주셨다. 저를 기억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신기했다.”

넷플릭스 덕분에 해외 팬들도 생겼다. 그는 “SNS에 외국 분들이 자국어로 댓글을 다신다”며 “댓글을 모두 알아볼 순 없지만 뒤에 하트 이모티콘을 보며 ‘아 나를 좋아해주는구나’ 느낀다”고 웃었다.

당초 ‘지정신’ 역으로 오디션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뒤 다시 ‘신혁우’ 역으로 도전해 배역을 따냈다.

“웅민 역에 도전했던 은수와 같은 날 오디션을 봤다. 그때 ‘저 친구가 웅민이 되면 재미있겠다’ 생각했는데 진짜 대본 리딩날 만났다. 너무 반가워서 서로 팔짱잡았었다.”

1989년생, 31세로 고등학생 연기에 도전했다. 그는 “촬영장인 고등학교에서 실제 교고생들을 보니 너무 싱그러웠다. 교복을 받고 내가 이걸 입어도 되나 자신감이 줄었다”며 “하지만 촬영장에 도착하니 친구들은 다 내 또래더라. 그래서 더 빨리 돈독해질 수 있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원작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큼 최대한 원작 캐릭터를 살리려 노력했다.

그는 “보는 사람들이 원작의 혁우와 싱크로율이 100%라고 느낀다면 그것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했다”며 “거기에 원작엔 없는 혁우의 모습이 나오면 ‘원작 속 혁우라면 이렇게 대처했을 것’이라고 새롭게 살렸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신을 함께 한 조병규에 대해서는 “나이는 동생이지만 현장 경험치는 저보다 월등하게 많다”며 “에너지가 정말 좋고 집중력이 좋은 배우”라고 극찬했다.

“촬영 전에는 ‘혁우 형’ 하면서 편하게 얘기하다 리허설에 들어가면 눈빛이 변한다. 촬영이 시작되면 진짜 17살 고등학생 같고 ‘컷’ 하면 26살 조병규로 돌아온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신명휘’ 역의 최광일은 어렸을까. “조반엔 겹치는 장면이 없다가 10부 정도 나올 때 처음 촬영장에서 만났다. 어떻게 인사드려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보자마자 ‘아들’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최광일의 친형이 배우 최민식인 점도 화제가 됐다. 그는 “촬영 때 얘기를 들어 알고 있었다”며 “최민식 선배를 실제 본 적은 없지만 두 분이 느낌이 많이 다르다. 최민식 선배는 무서운데, 광일 선배는 악귀와 동떨어진 느낌”이라고 웃었다.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은 없을까. 그는 “사실 지금의 모습이 혁우로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결말인 것 같다”며 “혹시 혁우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면 잠깐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 혁우에 대한 서사를 좀 더 푸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7일 방송된 스페셜 예능 ‘경이로운 귀환’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는 “예능이 처음이었는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 카메라가 온종일 붙어있는데 정말 ‘어어’ 하다가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다”며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했다.



실제 출연하고픈 예능에 대한 질문에는 “체험 삶의 현장”이나 ‘삼시세끼’ 같은, 할 일이 주어진 프로그램이 좋을 것 같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다”고 답했다.

2009년 연극 ‘모두들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로 배우계에 입문, 이후 2017년 영화 ‘아이 캔 스피크’, ‘군함도’, ‘내 안의 그놈’, ‘0.0MHz’, ‘극한직업’, ‘검은 여름’, KBS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tvN ‘그녀의 사생활’, JTBC ‘나의 나라’ 등에 출연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먼저 연기를 한번 해보라고 권유해서 연기 학원에 다니며 입문하게 됐다”며 “아버지 덕분에 진로 선택에 있어 일찍 고민해볼 수 있었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부모님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다.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이 일을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꿈 꿀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후원자시다. 항상 고맙고, 너무 사랑한다.”

차기작은 아직 미정이지만 영화 ‘샤크’ 개봉을 앞두고 있다며 많은 기대를 당부했다. “촬영은 끝났고 개봉 시나 형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이로운 소문’처럼 동명 웹툰이 원작이고 역시나 악역이다.”

매 작품 역할로서 기억되는 배우가 되고 싶다. 그는 “멋진 배역을 매력적으로 소화하는 배우들을 보면 그 순간들을 다 내 것으로 하고 싶다”며 “‘변호인’의 송광호, ‘베터랑’과 ‘사도’의 유아인,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순간순간 다 가져오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 악역이라도 작품에 따라 ‘재가 재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배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이 뜨는 강’ 감독 “살수’ 평강공주, 관전 포인트”

‘달이 뜨는 강’ 제작진이 관전 포인트를 밝혔다.

15일 오후 9시30분 첫 방송되는 KBS 2TV 새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은 고구려가 삶의 전 부였던 공주 평강(김소현 분)과 사랑을 역사로 만든 장군 온달(지수 분)의 운명에 굴하지 않은 순애보를 그리는 퓨전 사극 로맨스다.

윤상호 감독은 13일 “달이 뜨는 강”은 개성 만점 캐릭터들의 잔치”라며 “다양한 캐릭터들의 매력을 탐구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관전 포인트를 전했다.

윤 감독은 “익히 알고 있던 울보 평강 공주와 바보 온달 설화와 달리 본 드라마 주인공인 평강은 ‘살수’라는 단어 하나로 분위기가 확 바뀐다”며 “그 포인트를 살려주는 화려한 액션도 눈여겨볼 것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평강과 반대로 온화하고 순수한 온달이 만들어가는 예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안연홍, ‘펜트하우스2’ 합류...김소연네 입주 과외교사

새로운 인물 ‘진분홍’으로 활약

안연홍이 ‘펜트하우스’ 시즌2 새로운 인물 ‘진분홍’으로 등장한다.

오는 19일 첫 방송을 앞둔 SBS 새 금드극 ‘펜트하우스2’는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이는 서스펜스 복수극으로, 자식을 지키기 위해 악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자들의 연애와 복수를 그린다.

안연홍은 ‘펜트하우스2’에 천서진(김소연) 집의 입주 과외교사 진분홍 역을 맡아 전격 합류한다. 극중 진분홍은 천서진 딸 하은별(예빈)의 학습과 생활 전반을 관리해주는 인물이다.

13일 공개된 현장 사진에는 진분홍이 블랙 원피스와 하나로 묶여내린 머리 스타일로 단아함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를 응시

하며 온화한 미소를 보내고 있다. 무표정한 모습에서는 비밀스럽고 미묘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어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2019년 11월에 종영한 드라마 ‘수상한 장모’ 이후 오랜만의 안방극장 컴백이다. 안연홍은 “‘펜트하우스’ 시즌1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본 방송수하던 팬으로서 ‘펜트하우스2’에 합류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설렘 가득한 소감을 전했다.

그는 “사실 중간 투입이나 마찬가지로인데, 스태프들께서 어색하지 않도록 잘 대해주시어서 감사하다”며 “다행히 저번에 같이 작품을 했던 스태프들도 계속해서 마음 편하게 첫 촬영을 마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오윤희 역 유진 씨나 천서진 역 김소연 씨는 저와 같이 작품을 했던 후배들이었고, 숙스러웠던 첫 대본리딩과 촬영 때도 반갑게 두 팔 벌려 환영해주셔서 너무 고맙웠다. 그런 배



려 때문에 마음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안연홍은 첫 촬영부터 ‘진분홍’ 역에 완벽하게 스며들면서 남다른 포스와 존재감으로 현장을 압도했다”며 “새로운 인물 ‘진분홍’의 활약을 주목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펜트하우스2’는 오는 19일 오후 10시 첫 방송 된다.

청하, 오늘 컴백...솔로 쿼의 저력 입증한다

데뷔 4년 만의 첫 번째 정규앨범 ‘퀼렌시아’ 발매

가수 청하가 ‘퀼렌시아(Querencia)’로 또 한번 ‘솔로 쿼’의 저력을 증명한다.

청하는 15일 오후 6시 국내외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솔로 데뷔 4년 만의 첫 번째 정규앨범 ‘퀼렌시아’를 발매하고 컴백한다.

지난해 4월 첫 선공개곡 ‘Stay Tonight (스테이 투나잇)’을 발표하며 긴 여정을 시작한 청하가 10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21개 트랙을 만날 수 있다.

‘Querencia’는 ‘안식처’라는 뜻을 지닌 스페인어다. 청하는 앞서 스포일러 클럽 영상을 통해 “삶의 ‘Querencia’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작명의 이유와 이번 앨범이 담은 메시지를 설명한 바 있다.

두 편의 뮤직비디오 티저를 통해 베일을 벗은 타이틀곡 ‘Bicycle (바이시클)’은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의 설렘과 벅찬 에너지를 표현한 곡이다. 강렬한 피츠 기타의 도입부와 함께 전개되는 R&B 팝·트랩 사운드에 청하가 직접 작사에 참여했다.



OCN, 드라마 라인업 공개

OCN이 올해 선보일 드라마 라인업을 11일 공개했다.

타임워프(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한 정치 드라마 ‘타임즈’를 시작으로 ‘다크홀’, ‘홀타운’, ‘보이스 4’까지 총 4편이다. 20일 처음 방송되는 ‘타임즈’는 5년 전 과거의 기자 이진우(이서진)와 전화 연결된 서정인(이주영)이 아버지 서기태(김영철) 대통령의 죽음을 막으며 위험한 진실과 마주하는 타임 워프 정치 미스터리물이다.

상반기 방송 예정인 ‘다크홀’은 싱크홀에서 나온 검은 연기를 마신 변종 인간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생존기를 그린 드라마로, 김욱빈과 이준혁이 주연을 맡았다. 2년여 만에 돌아오는 OCN의 최고 흥행 시리즈물 ‘보이스’의 네 번째 시즌도 공개를 앞냈다. 이하나 등 원년 출연진에 새로운 얼굴들이 합류한다.

하반기에는 소도시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연쇄살인과 정체불명의 소리가 담긴 녹음테이프의 진실을 찾아가는 미스터리 악령 스릴러 ‘홀타운’이 시청자들과 만난다.

강다니엘, 신곡 ‘파라노이아’ 뮤비 티저 공개

내일 오후 6시 발매

가수 강다니엘이 카리스마를 담은 퍼포먼스로 돌아온다.

강다니엘은 12일 각종 SNS 공식 계정을 통해 싱글 ‘파라노이아(PARANOIA)’의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했다.

앞서 공개된 티저가 누아르의 스토리텔링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퍼포먼스 일부를 공개하며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10여초 분량의 짧은 영상이지만, 분노로 타오른 눈빛으로 가슴을 쓸어올리는 몸짓부터 두 팔을 강하게 내리치면서 허공에 고개를 맡기는 엔딩이 눈길을 끈다. 복면을 쓴 댄서들과 군무 역시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솔로 뮤지션으로 한 단계 도약을 의미하는 강다니엘의 ‘파라노이아’는 오는 16일 오후 6시



에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